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 부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지현¹ · 진수진² · 주현정³ · 조연실⁴

고신대학교 간호대학¹,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², 창원산재병원³, 고신대학교 복음병원⁴

The Impact of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Language Ability, Self-esteem,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ir Family Health: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Adjustment

Lee, Ji Hyun¹ · Jin, Su Jin² · Ju, Hyeon Jeong³ · Cho, Yeon Sil⁴

¹Department of Nursing, Kosin University, Busan

²Sungkyunkwan University Samsung Changwon Hospital, Changwon

³Changwon Wokers' Compensation General Hospital Changwon,

⁴Kosin University Hospital, Bu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family health of women who came to Korea for being married to Korean men.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60 immigrant women at multicultural centers located in C and B cities from May 10th to 30th, 2012. The variance analysis on the samples was conducted by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minimization function with AMOS 7.0. The fitness was evaluated by means of the SRMR, RMSEA, CFI, and TLI with a 90% confidence interval. **Results:** First, immigrant women's self-esteem and acculturative stres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ir family health. Second, their self-esteem and acculturative stress have direct effects on their marital adjustment. Third, their marital adjustment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ir family health. Forth, immigrant women's Korean language ability was found not to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ir marital adjustment and family health. **Conclusion:** In order to enhance the family health of immigrant wome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nursing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immigrant women's self-esteem, marital adjustment and acculturative stress.

Key Words: Immigrant, Self-esteem, Stress, Social adjustment, Family health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으로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문화 가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은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결혼보다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더 많다(Yang, 2011).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일시체류가 아닌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환경과 사회문화적 조건이 많이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힘든 과정과 어려움 및 고통을 가진다(Kim, 2011).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중국(26%),

주요어: 결혼이주여성,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부적응, 가족건강성

Corresponding author: Jin, Su Jin

Sungkyunkwan University Samsung Changwon Hospital, 50 Hapseong 2-dong, Masanhoewon-gu, Changwon 630-723, Korea.
Tel: +82-10-2858-8985, E-mail: 0178sujin@hanmail.net

투고일: 2012년 12월 6일 /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4일 /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23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베트남(21%), 조선족(15%), 일본(12%), 러시아(7.5%), 태국(6.9%), 필리핀(5.8%) 및 몽골(5.2%)이 대부분(Kim, Kim, & Choi, 2010)이며, 그 외에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멕시코, 네팔, 카메룬 등으로 이들의 출신국이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출신국은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문화적 차이로 국제결혼으로 야기되는 어려움에 더하여 이주여성과 한국 남편 모두 상호문화에 적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언어 소통문제와 상대 국가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Kim & Kim, 2011). 이주하는 국가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어눌한 언어구사력과 낮은 사회적 가치 및 사회관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한다(Oh, Koeske, & Sales, 2002; Rhee, Chang, & Rhee, 2003).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의 서툰 한국어능력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Yoon, 2012)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을 낮추며 부부적응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Kim et al., 2010). 이들의 적응유연성이 떨어지면 다문화 가족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이혼을 증가와 가족해체 현상으로 가족건강성을 해치게 된다. 우리나라 총 이혼 건수 123,999건 가운데 외국인 이혼은 11,692건으로 9.4%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3.9% 증가한 반면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은 2009년 8,300건으로 전년도 대비 4.2%가 증가하여 한국여성과 결혼외국남성의 3.0% 이혼을 증가 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Yoon, 2012).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이혼율이 급증하는 것은 이미 그 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가족건강성의 위협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기인한다(Kim & Kim, 2011).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출신국에 비해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더 나은 국가로 이주하여 새로운 문화와 언어, 환경을 접하며 받는 사람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ong, 2009). 부부적응이 어려워질수록 이주민과 본래 거주민 모두의 정신건강이 위협을 받게 되며(Hwang & Ting, 2008), 정신건강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다(Rhee et al., 2003). 낮은 자아존중감은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정서적 상태와 결혼생활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심리적응 상태를 나타내므로 부부관계가 불안정해 지고(Rhee et al., 2003), 그들 가족의 건강성을 위협(Kim, 2011)하게 된다.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건강한 정도로서 가족이 상호경계를 유지하고 기능적이면서 동시에 정서적 안식처를 제공하는 긍정적 관계를 가진 가족이다(Jun, Min, Lee, & Choi, 2009).

이는 강한(strength) 가족, 건강한(health) 가족, 기능적(functional) 가족, 최적의(optimal) 가족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Kim, 2011). Kwon (2001)은 가족건강성은 가족체계 내, 외적으로 스트레스와 가족문제에 효율적 대처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족의 응집성과 만족도를 가지는 가족이며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이 가족구성원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가족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Yoo (1991)가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학문적 정의를 하였고, Yoo, G. S. (2004)는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이라고 하였으며, Yoo, Y. J. (2004)는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가치관을 지속, 발전시키는 가족이라고 하였고, Eo와 Yoo (1995)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맞는 가족건강성 측정도구를 가족구성원간에 유대가 강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며 위기나 문제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가족이라고 하였으며,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Kim (2011)은 결혼이주여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긍정적으로 높다고 하였다.

한편, Berry (2005)는 두 개의 다른 문화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변화를 검증하여 심리, 사회문화적으로 통합형, 동화형, 분리형, 소외형의 4개의 문화적응전략을 설명하였다. 통합형은 소외형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고 적응을 잘하며, 통합형의 문화적응을 위해서는 상호간 문화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하고 통합형 문화적응전략으로 부부적응을 높이므로 가족건강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Choi, J. H., 2011; Kim, 2011), 한국어 능력과 가족건강성(Jun et al., 2009),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Choi, J. H., 2011; Kim, 2011; Kim & Kim, 201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Choi, J. H., 2011; Kim & Kim, 2011), 부부적응과 가족건강성(Jun et al., 2009; Kim, 2011)의 관계연구가 있었고,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한국어 능력과 부부적응(Jun et al., 2009; Kim & Lee, 2010; So, 2006; Yoon, 2012), 자아존중감과 부부적응(Kim & Chon, 2012; Park, 2011; Yoon, 201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Choi, J. H., 2011; Hong, 2009; Kim et al., 2010; Moon, 2011)에 관한 관계연구가 있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의 영향요인

에 관한 연구로는 Choi, Y. K. (2011), Kim (2011), Kim과 Choi (2011), Kim과 Kim (2011)의 연구가 있었고, Jun 등 (2009)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실태조사이거나 관계연구로서 가족건강성과 관계변인만을 설명하거나 단순히 가족건강성의 영향요인만을 살펴보고 있으며, 제한적인 형태의 가족건강성을 고려하고 있어서 포괄적 가족건강성 대책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부적응 및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부부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포괄적 가족건강성을 돕기 위한 지원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부적응이 가족건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부적응을 매개로 하여 가족 건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근거로 하여 가족건강성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한 후에 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도, 매개효과와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표적모집단으로 B시와 C시에 소재한 다문화 가족센터 각각 4곳의 결혼이주여성을 근접모집단으로 편의표출하였다. 2012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

지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278명이었으며, 연구참여를 거절한 6명과 설문지의 완성도가 떨어진 12명을 제외한 총 260명이 최종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문화 가족센터에 방문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목적을 이해하며 정신적 문제가 동반되지 않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수 개수의 최소 5배의 표본이 필요하고 10배가 가장 이상적인 표본의 크기이다. 본 연구의 모수의 개수는 19개로 표본 크기의 범위는 95~190명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설문지가 260부이기에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용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본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기존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를 결혼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후 작성 소요시간과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나 응답의 반응을 검토한 다음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 실시후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문항을 선정한 후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한국어 능력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영역 4문항에 대하여 이주 여성 스스로가 5점 척도 즉,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Hong (2009)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사회적 편견 8개 문항, 의사소통 문제 6개 문항, 문화충격 11개 문항, 적대감 6개 문항, 향수병 4개 문항의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범위는 최저 35점에서 최고 16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였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Jon (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on (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2$ 였다.

4) 부부적응

본 연구에서는 Yi와 Gim (1996)이 번안한 부부적응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점 척도로 의견일치 13문항, 애정표현 2문항, 관계에 대한 만족 7문항, 응집력 4문항의 총 26개 문항이며, 점수범위는 최저 26점에서 최고 15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였다.

5) 가족건강성

본 연구에서는 Eo와 Yoo (1995)이 개발하고 수정·보완한 가족건강도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가족유대 6개 문항, 의사소통 7개 문항, 가치공유 5개 문항, 문제해결능력 4개 문항의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범위는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Cronbach's α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였다.

4.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자료수집은 연구필요성과 목적, 참여로 인한 유익성과 중단가능성, 작성방법 및 소요시간 등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를 받고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이었으며,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에 따라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선택하여 직접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과 AMOS 7.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계수를, 연구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7.0을 사용하여 요인 부하량과 기각 한계비(critical ratio)를 검증하였으며, 대상자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가설

적 모형의 자료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5세 미만이 21.4%, 25~30세 미만이 36.5%, 30~35세 미만이 24.4%, 35세 이상이 16.7%였으며, 최종학력은 초졸이 7.1%, 중졸이 29.8%, 고졸이 47.0%, 대졸 이상이 16.1%였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82.9%, 결혼기간은 1년 미만이 23.6%, 1~5년 미만이 57.1%, 5~10년 미만이 13.5%, 10년 이상이 5.8%였다. 국적으로는 중국이 30.8%, 베트남이 47.3%, 필리핀이 6.9%였고, 종교가 없는 경우는 45.3%, 있는 경우는 54.7%였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31.9%, 취득할 생각이 없는 경우는 5.4%였다. 남편만난 경위는 친구소개가 47.1%, 결혼중개업체가 41.2%였고, 사례비를 양쪽에서 지불한 경우가 35.4%, 배우자만 지불한 경우가 24.5%,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33.1%였다. 동거가족이 남편인 경우가 19.2%, 남편과 자녀가 40.4%, 남편과 시부모가 31.4%였고, 본국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는 45.5%였다. 월 평균소득에서는 200만원 미만이 50.8%,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9.2%였고, 결혼 전 얻은 배우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는 47.6%,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17.2%로 나타났다.

2. 주요변인의 서술적 통계 및 다중공성선 분석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의 평균은 5점 척도에 2.89, 표준편차는 0.79,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척도에 평균이 2.36, 표준편차가 0.70,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4점 척도에 2.86, 표준편차가 0.34, 부부적응은 6점 척도에 평균이 4.40, 표준편차가 0.61, 가족건강성의 평균은 5점 척도에 3.54, 표준편차가 0.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읽기가 3.06으로 가장 높았고 말하기가 2.80으로 가장 낮아 읽고 듣기보다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이 2.80으로 가장 높았고 향수병이 2.64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지각된 적대감이 1.9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긍

정이 2.97, 부정이 2.75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었으며, 부부적응에서는 관계만족이 4.53으로 가장 높았고 의견일치가 4.30으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1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측정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모형 진단 결과에서 상승분산이 10을 넘는 변수가 없었으며 공차도 0.1 이하인 변수가 없었다(Table 1).

3. 확인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대상자의 한국어능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부적응, 가족건강성의 다섯 변인에 대해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어느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AMOS 프로그램과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측정모형의 확인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적합도 검정지표를 이용하였다. GFI (Goodness of Fit Index: 0.9 이상이 바람직함),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0.9 이상이면 바람직함), RMR (Root Mean-Squared Residual: 0.08 이하이면 바람직함), NFI (Normed Fit Index: 0.9 이상이면 바람직함), NNFI (Non-Normed Fit Index: 0.9 이상이면 바람직함), CFI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이면 바람직함), IFI (Incremental Fit Index: 0.9 이상이면 바람직함),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0.08 이하이면 바람직함) 등의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1차 확인요인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상반된 두 하위영역을 가지고 있어 항목별 상관계수와 신뢰성 지수가 낮고, 오차항은 요인을 전부 설명할 수 없으므로 확인요인분석에서는 제외하고 네가지 변인들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부적응을 구성하는 “관계만족” 변수는 표준적재치가 0.5보다 낮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응집력” 변수 또한 표준적재치가 낮아 분석과정에서 제거를 고려하였으나 이 변수는 부부적응을 구성하는 중요한 변수이고 이 변수를 제거한다고 해서 개념신뢰도나 분산추출지수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확인요인분석결과 χ^2 값은 316.33 ($df=98, p<.001$), GFI=0.87, AGFI=0.82, RMR=0.06, NFI=0.88, NNFI=0.90, CFI=0.92, IFI=0.92, RMSEA=0.09으로 기준치에 미달하는 부분도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또한, 모든 요

인에서 개념신뢰도(0.7 이상), 분산추출지수(AVE, 0.5 이상)가 임계치 이상을 보여 신뢰성과 수렴 타당성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각 요인 간의 예측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 다중상관지수를 비교한 결과 대각선의 분산추출지수보다 모두 다중 상관계수(r^2)의 값이 작아 요인 간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가설적 모형의 분석

연구초기에 설정한 연구모형에 해당하는 이론모형을 각 요인간 상관행렬을 기초로 분석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χ^2 값은 382.32 ($df=126, p<.001$), GFI=0.86, AGFI=0.81, RMR=0.06, NFI=0.87, NNFI=0.88, CFI=0.90, IFI=0.91, RMSEA=0.09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 삼는 지표들과 비교할 때 몇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연구모형의 GFI=0.86, AGFI=0.81, NFI=0.87, NNFI=0.88은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0.90에 근접하며, RMR=0.06, RMSEA=0.09는 보통 0.08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부분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고, CFI=0.90, IFI=0.91로서 0.90 이상으로 우수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초기의 연구모형을 유지하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와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x3과 x4의 오차항간, x8과 x9의 오차항간, x7과 x9의 오차항간 공분산을 순차적으로 허용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은 299.23 ($df=123, p<.001$), GFI=0.89, AGFI=0.85, RMR=0.06, NFI=0.89, NNFI=0.92, CFI=0.93, IFI=0.94, RMSEA=0.07로 적합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수정모형을 채택하였다(Table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이론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능력과 부부적응 사이의 경로계수 -0.02 ($p=.798$)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t=-0.26<1.96$), 한국어능력과 가족건강성 사이의 경로계수는 또한 0.02 ($p=.746$)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0.33<1.96$). 따라서 한국어능력이 부부적응과 가족건강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가설 1,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부부적응 사이의 경로계수는 0.32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AVE and CR

Variables	Categories	Range	M±SD	Skewness	Kurtosis	Tolerance	VIF	Estimate	SE	AVE	CR
Korean ability	Total	1~5	2.89±0.79	.38	.36	.93	1.08			0.76	0.927
	Speaking	1~5	2.80±0.86	.36	.42	.20	4.89	0.94	0.08		
	Listening	1~5	2.87±0.87	.34	.11	.29	3.50	0.86	0.20		
	Reading	1~5	3.06±0.90	.11	.02	.29	3.41	0.83	0.25		
	Writing		2.85±0.94	.23	.12	.38	2.66	0.76	0.37		
Acculturative stress	Total	1~5	2.36±0.70	.53	.24	.76	1.31			0.63	0.892
	Culture shock	1~5	2.38±0.80	.42	-.13	.27	3.76	0.93	0.09		
	Communication	1~5	2.80±0.97	.03	-.85	.46	2.16	0.62	0.59		
	Social prejudice	1~5	2.17±0.87	.64	-.34	.38	2.63	0.74	0.35		
	Antagonism	1~5	1.92±0.77	1.05	1.09	.34	2.91	0.78	0.23		
	Homesick		2.64±0.92	.32	-.62	.51	1.97	0.68	0.45		
Self-esteem	Total	1~4	2.86±0.34	-.23	.04	.88	1.14			-	-
	Positive	1~4	2.97±0.49	-.18	.41	.76	1.32	-	-		
	Negative		2.75±0.48	-.15	.31	.80	1.26	-	-		
Dyadic adjustment	Total	1~6	4.40±0.61	-.02	-.50	.75	1.33			0.61	0.817
	Consensus	1~6	4.30±0.79	-.32	.01	.34	2.94	0.91	0.11		
	Cohesion	1~6	4.50±0.85	.14	-.70	.68	1.47	0.47	0.57		
	Relationship satisfaction	1~6	4.53±0.79	-.08	-.92	.72	1.38	-	-		
	Displays of affection		4.45±1.00	-.49	-.18	.43	2.35	0.79	0.37		
Family health	Total	1~5	3.54±0.65	.00	-.37					0.80	0.941
	Family attachment	1~5	3.80±0.72	-.11	-.55	.39	2.56	0.78	0.19		
	Family communication	1~5	3.57±0.76	-.09	-.57	.26	4.23	0.91	0.18		
	Value sharing	1~5	3.28±0.80	-.01	-.02	.32	3.17	0.85	0.11		
	Problem solving ability		3.43±0.69	.23	-.13	.44	2.30	0.77	0.21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nstruct reliability.

Table 2. Model Fitness Statistics for Hypothetical and Modified Model

Categories	$\chi^2 (p)$	df	CMIN/df	GFI	AGFI	RMR	NFI	NNFI	CFI	IFI	RMSEA
Criteria			≤ 2	≥ 0.90	≥ 0.90	≤ 0.08	≥ 0.90	≥ 0.90	≥ 0.90	≥ 0.90	≤ 0.08
Hypothetical	382.31 (< .001)	126	3.03	0.86	0.81	0.06	0.87	0.88	0.90	0.91	0.09
Modified	299.23 (< .001)	123	2.43	0.89	0.85	0.06	0.89	0.92	0.93	0.94	0.07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RMR=root mean-squared residual; NFI=normed fit index;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p < .001$), $t = 5.10$,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 사이의 경로계수는 0.21 ($p < .001$), $t = 3.62$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적응 값이 가족건강성 값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부부적응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부적응이 좋고 또한 가족건강성이 좋아진다는 가설 3,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적응사이의 경로계수는 -0.40 ($p < .001$), $t = -5.8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사이의 경로계수는 -0.25 ($p < .001$), $t = -4.01$ 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부적응과 가족건강성이 좋아지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부적응과 가족건강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 가설 6은 채택되었다.

넷째, 부부적응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화계수를 확인한 결과 0.46 ($p < .001$), $t = 6.30$ 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부적응이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적응이 원활하고 잘 될수록 가족건강성이 좋아짐을 알 수 있어 가설 7은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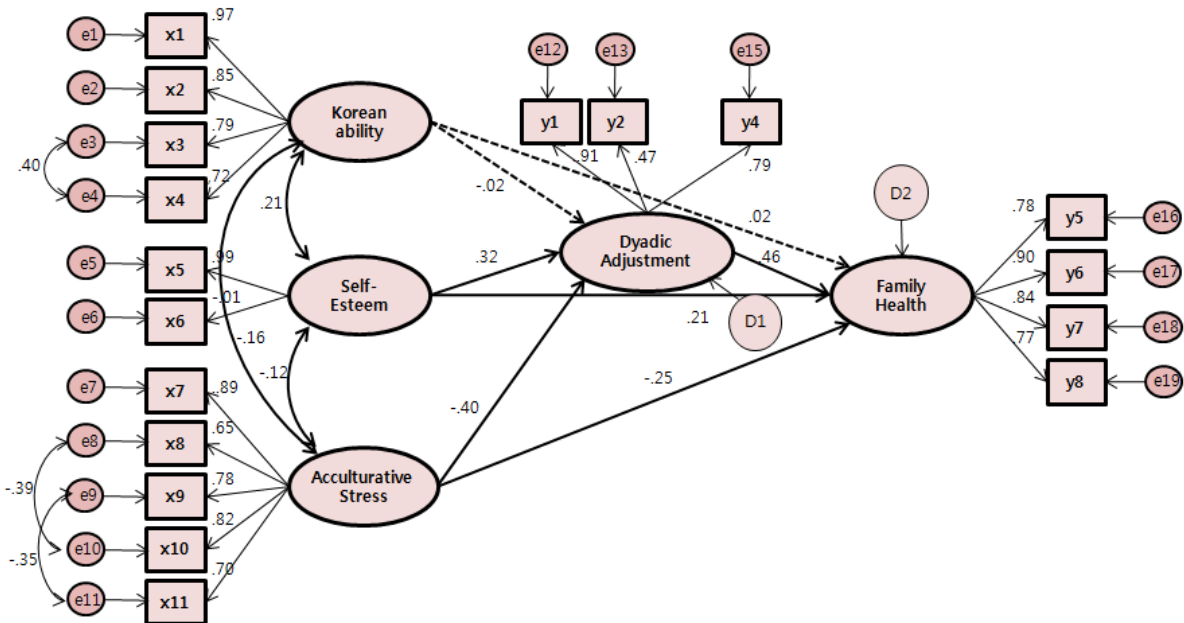
연구모형에 제시된 변수들 사이의 가설검증결과는 다음 Table 3에 요약해서 제시하였고, 유의미한 경로관계는 Figure 1과 같다.

연구모형에 대한 전체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화된 공

Table 3. Hypothetical and Modified Model of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Path effect	Hypothetical		Modified	
	B	CR (t)	B	CR (t)
Korean ability → Dyadic adjustment	-0.01	-0.11	-0.02	-0.26
Korean ability → Family health	0.04	0.66	0.02	0.32
Self-esteem → Dyadic adjustment	0.33	5.15***	0.32	5.10***
Self-esteem → Family health	0.21	3.60***	0.21	3.61***
Acculturative stress → Dyadic adjustment	-0.41	-5.96***	-0.40	-5.82***
Acculturative stress → Family health	-0.24	-3.80***	-0.25	-4.01***
Dyadic adjustment → Family health	0.46	6.22***	0.46	6.30***

*** $p < .05$.



x1=speaking; x2=listening; x3=reading; x4=writing; x5=positive; x6=negative; x7=culture shock; x8=communication; x9=social prejudice; x10=antagonism; x11=homesick; y1=consensus; y2=cohesion; y4=display of affection; y5=family attachment; y6=family communication; y7=value sharing; y8=problem solving ability.

Figure 1. Path diagram for final model.

변량 분해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Table 4와 같다.

총효과의 경우 부부적응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효과가 0.46로 가장 컸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효과 -0.43,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0.40, 자아존중감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효과 0.35, 자아존중감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0.32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1 ($p = .8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 적응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15 ($p = .021$)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18 ($p = .0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부 적응을 통해 가족건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Path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Korean ability → Dyadic adjustment	-0.02 (0.844)	-	-0.02
Korean ability → Family health	0.02 (0.840)	-0.01 (0.844)	0.01
Self-esteem → Dyadic adjustment	0.32 (0.021)	-	0.32
Self-esteem → Family health	0.21 (0.021)	0.15 (0.021)	0.36
Acculturative stress → Dyadic adjustment	-0.40 (0.021)	-	-0.40
Acculturative stress → Family health	-0.25 (0.021)	-0.18 (0.021)	-0.43
Dyadic adjustment → Family health	0.46 (0.021)	-	0.46

논 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부부적응이 가족건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족건강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부부적응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으로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한국어능력을 제외한 잠재요인들의 측정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적재량을 보여서 잠재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부부적응 그리고 가족건강성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보면, 자아존중감은 부부적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부적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정도는 중간 정도로 대체로 건강가족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에선 가족유대와 의사소통 영역은 평균보다 높으며, 가치공유와 문제해결능력 영역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을 측정한 Kim과 Choi (2011)의 연구와 Kim과 Kim (2011)의 연구에서도 중간 정도로 나타난 결과와 가족건강성의 높고 낮은 하위영역이 일치하였다. 이는 국제결혼의 형성된 가족이라는 것만으로 가족건강성이 낮다고 할 수 없겠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유대가 높으며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치공유 측면의 가족건강성은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

하여 부부가 공동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문화체험이나 자신에게 익숙하던 환경과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한국어 능력은 중간 정도이며, 읽기는 높은 반면에 듣기와 말하기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한 Jun 등(2009), Kwon (2009), Yoon (2012)의 연구에서 한국어 능력이 중간 정도이었으며 그 중 읽기 정도는 높고 말하기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고, Kim과 Lee (2010)의 연구에서 읽기가 가장 높고 말하기와 쓰기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Kwon (2009), Kim (2011), Kim과 Kim (2011), Yoon (2012)의 연구에서 중간 정도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셋째, 부부적응의 매개역할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부부적응은 한국어 능력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매개하고 있지 않으며,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은 유의수준 .05에서 부부적응과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로를 제거하고 다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미미하게나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효과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부부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능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직접, 간접 및 총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은 간접효과와 총 효과에서도 유의한 효과

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의사소통 영역이 높고 적대감 영역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중간 정도로 나타나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Kim과 Kim (2011)의 연구는 문화충격의 영역이 높았고, 두려움 영역이 낮게 나타난 반면에 Kim (2011), Hong (2009)의 연구는 향수병 영역이 아주 높고 차별감과 적대감이 아주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기간과 체류기간, 가족의 월평균 소득 및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복지관이나 이주민센터를 통한 출신국가별로 먼저 이주한 사람들과의 멘토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본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적응은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부부적응을 연구한 Hong (2009)의 연구에서 중간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본 대상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은 절반이며 중국출신이 1/3을 차지한 반면에 Hong (2009)의 대상자는 전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로 출신국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동남아 출신의 이주여성이 중국출신 이주여성들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가지므로 출신국가별로 다른 문화체험과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적응이 가족건강성에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총효과 면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적응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더 높아지며, 부부적응이 가족건강성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인 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이 가족건강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Jun 등(2009)의 연구와 부부적응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Moon (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건강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험과 관계증진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부부적응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가족건강성에 영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Kim (2011)의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을 연구한 Kim (2006)은 한국어 능력이

능숙하지 않은 부부간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갈등이 높다고 한 결과와 Jun 등(2009)의 연구에서 한국어 능력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상반되었다.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언어장벽이 일상생활 중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표출하는 요인이므로 언어능력이 결혼생활과 새로운 문화정착과 문화적응에 필수적이지만 삶을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비언어적 소통방법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많은 이민 관련 연구들은 주류문화의 언어 능력이 그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왔다. 언어능력은 거주기간과 함께 이민자의 자존감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서의 대인관계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을 연구하는데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부부적응에 영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부부적응의 한 양상이라 볼 수 있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Yoon (2012)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연구한 Jun 등(2009)의 연구에서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하위요인 향수 및 부적응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부부 의사소통과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Hong (2009)의 연구에서 부부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낮게 나타난 것과 언어능력과 문화적 적응을 연구한 Kim과 Lee (2010)의 연구에서 언어능력은 문화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상반되었다. 이런 상반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로 자료수집 하였는데 대상자인 결혼이주 여성의 37.3%가 한국어로 답했으며 한국어 능력이 평균 이상되고, 결혼기간이 비교적 길어서 한국어 사용기간이 길고 한국어에 능숙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변하고 있다고 여진다.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의 부부적응은 단순히 언어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에게 가장 가까워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남편, 시부모 가족, 이웃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소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어능력이 부부적응이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적응에 언어교육만이 아닌 이주여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기회로서 이주여성들에게 가족과 이웃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식개선과 이주

여성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캠페인, 바자회 등의 활동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Choi, J. H.(2011)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Kim (2011), Kim과 Kim (2011)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낮은 경우보다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을 높이도록 자아존중감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가 유의한 Yoon (2012)의 연구와 자아존중감과 가족적응성이 유의하다고 한 Kim과 Chon (2012), Park (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Mo와 Kim (2002)의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부적응이 높아지고, 부부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은 독립적 및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시 부부의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이 부부적응을 향상시키므로 이주여성 상담 프로그램에 자아존중감을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여덟 번째,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가족건강성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총효과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더 높아지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Choi, J. H.(2011)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Kim과 Kim (2011)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보다 가족건강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Hong (2009)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베트남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연구한 Yang (2008)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이민과 낮은 환경과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문화충격이나 향수병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될 경우 가족건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Choi, J. H. 2011; Hong, 2009; Kim, 2006; Kim et al., 2010; Kim & Kim, 2011; Moon, 2011)가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선 외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가족, 사회 등 외적 지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부부적응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부부적응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과 남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활동이 도움될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느끼는 차별감과 향수감을 다소 감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부부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는 2개의 지역에서 일정한 선정기준에 해당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구조모형을 구축하였으므로, 특정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므로 활용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서 요인분석 후 값이 낮은 항목의 제거를 고려하였으나 제거하여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는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다른 도구로 고려하여야 하리라 본다. 한편 자기보고식 질문지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질문지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을 종속변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가족건강성의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실제 가족체제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건강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대상자의 학력이나 결혼기간, 경제상태, 친정식구들과의 연락

관계 등의 일반적인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거나 부부적응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다른 배우자 관련 요인들을 연구에 포함시켜 후속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부부적응을 통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직접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인 사회적 편견, 의사소통, 문화충격, 적대감, 향수병을 경감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의 제공과 더불어 의료인과 가족의 프로그램 참여 등 구체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 체계의 구축 및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높힘으로써 부부적응을 향상하고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키는 기초자료로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의료인과 가족의 지지 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을 촉진시킴으로써 부부적응을 향상하고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의 수립을 제언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 정도에 따른 가족해체가 능력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Choi, J. H. (2011). A study of stress and family strength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4), 29-46.

Choi, Y. K. (2011). *A study on the factors of family health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EO, E. J., & Yoo, Y. J. (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th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45-156.

Hong, M. K. (2009).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dyadic adjustment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m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ouple's commun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wang, W., & Ting, J. Y. (2008). Disaggregating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2), 147-154.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1), 107-130.

Jun, H. J., Min, S. H., Lee, M. Y., & Choi, H. Y. (2009). Path of the variables to migrant women's families' heal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2), 5-27.

Kim, H. S., & Kim, K. S. (2011). A study of related variables to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coup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2), 59-86.

Kim, H. S., Kim, H. J., & Choi, S. S. (2010). Acculturative stres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age migration females: Focusing o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2), 153-176.

Kim, J., & Chon, C. W. (2012). The self-esteem of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effects on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round Jeonbuk Mujugun area.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6(1), 107-125.

Kim, K. H. (2011). *A study on stress, coping style and family strength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im, K. H., & Choi, J. H. (2011). A study on stress, coping style and family strength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23, 23-49.

Kim, O. N. (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Family and Culture*, 18(3), 63-106.

Kim, S. G., & Lee, C. J. (2010). The effect of linguistic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among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1), 5-20.

Kwon, B. S. (2009). The effects of Korean ability and self-esteem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Vietnamese, Pilipino, and Chinese women in Daegu.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2), 5-32.

Kwon, S. J. (2001).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family life

- events stress,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upport of the wives who reside in some area.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2(3), 696-704.
- Mo, E. H., & Kim, J. H. (2002). The mediating effects of couple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4), 887-900.
- Moon, H. M. (2011). *The relation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anxiety among immigrant wome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Moderation effect of marit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Oh, Y., Koeske, G. F., & Sales, E. (2002). Acculturation, stress,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511-526.
- Park, M. S. (2011).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s self-esteem and resilience-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y happines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1(5), 393-402.
- Rhee, S., Chang, J., & Rhee, J. (2003). Acculturation, communication patterns, and self-esteem among Asian and Caucasian American adolescents. *Adolescence*, 38(152), 749-769.
- So, E. D. (2006). *A study on the impact factors in the marriage adaptability of foreign female immigrant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 Yang, S. J. (2011). Health behaviors and related factors among Asian immigrant women in Korea by ethnicity.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2(1), 66-74.
- Yang, Y. M. (2008). *Acculturation and health outcomes among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Taiwa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USA.
- Yi, M. S., & Gim, J. S. (1996).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dyadic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1), 129-140.
- Yoo, G. S. (2004). Focusing on family systems and family strengths: A survey on the elements of strong famil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25-42.
- Yoo, Y. J. (199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mily welfare program for strengthening family life.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9(1), 45-63.
- Yoo, Y. J.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119-151.
- Yoon, R. I. (2012). *The influence of married women immigrants' self-esteem, Korean language skills and husbands' abilities to use wives' native languages on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